

타임지, 방탄소년단 '그래미 행차' 주목

시사주간지 타임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그래미 어워즈 방문기를 상세히 전했다.

타임은 11일 'BTS는 어떻게 첫 그래미어워즈 방문을 잊지 못할 순간으로 만들었나'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며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주목했다. 타임은 특히 BTS의 공식 팬클럽인 아미의 행보를 쫓으며 "BTS의 팬들은 그들을 찍기 위해 레드카펫 행사 때부터 분주했다." 며 "돌리 파튼을 위한 헌정 공연 때 자리에서 일어난 BTS를 비롯해 래퍼 드레이크가 수상을 위해 무대에 등장할 때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는 멤버 슈가에 이목이 집중됐다." 고 전했다. 이어 BTS가 그들의 히트곡 '페이크러브' 가 배경음악으로 흐르는 무대에 올라 '베스트 R&B 앨범' 부문 트로피를 미국 여성 가수 허(H.E.R.)에게 건네는 모습도 상세히 묘사하며 BTS의 미국 투어 공연, 토크쇼 출연, 유엔 총회 연설 등 그들의 행보를 짚었다.

한편 이날 BTS는 한국 디자이너가 만든 의상에 국산 자동차를 타고 그래미에 입성해 눈길을 끌었다. 패션지 보그는 "BTS가 두명의 한국 디자이너를 영입해



이런 고정관념을 뒤집었다." 면서 "뷔, 정국, 진, 지민, 슈가, RM은 제이백 쿠튀르 의상을, 제이홉은 김서룡 디자이너 의상을 입었다." 고 소개했다.

또한 BTS는 고급 리무진 대신 그들이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현대자동차 대형 SUV 팔리세이드를 타고 등장했다. 시상을 마친 방탄소년단은 소속사를 통해 "오늘 그래미어워즈에 참석하고 싶다는 꿈을 이루었다." 며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어 기쁘고 행복하다." 고 소감을 전했다.

몬스타엑스, 세계적 DJ 스티브 아오키와 컬래버레이션



한국의 보이그룹 몬스타엑스가 세계적 DJ 겸 프로듀서 스티브 아오키(Steve Aoki, 사진)와 만났다.

소속사에 따르면 몬스타엑스는 18일 컴백하면서 발

표한 정규2집 앨범 '파트2' 에서 세계적인 DJ이자 프로듀서인 스티브 아오키와 특별한 앨범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했다. 스티브 아오키는 몬스타엑스의 이번 앨범에 프로듀서로 참여, 그동안 몬스타엑스가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음악적 매력을 더욱 끌어올렸다.

스티브 아오키는 빌보드와 그래미를 넘나들며 세계적으로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는 DJ 겸 프로듀서로, 아프로잭, 린킨파크, 돈 디아블로, 방탄소년단 등 전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유명 아티스트들과 작업했다.

이들의 만남은 앞서 스티브 아오키가 다수의 매체 인터뷰를 통해 밝힌 협업 러브콜로 시작됐다. 스티브 아오키는 함께 작업해보고 싶은 K-팝 아티스트로 몬스타엑스를 꼽았고, 이를 계기로 두 아티스트의 특별한 컬래버레이션이 성사됐다는 후문이다.

블랙핑크, 첫 미국 생방송 무대에 팬들 열광

블랙핑크가 ABC의 간판 프로인 '굿모닝 아메리카'를 통해 미국 전역에 확실한 존재감을 각인시키며 성공적인 미국 진출을 알렸다.

블랙핑크는 12일, 40년 넘는 역사와 아침 방송 중 최고 시청률을 자랑하는 ABC '굿모닝 아메리카(Good Morning America, GMA)' 에 출연해 '뚜두뚜두' 무대로 뉴욕 타임스 스퀘어를 흔들었다.



블랙핑크와의 인터뷰에 앞서 사회자는 "블랙핑크의 음악이 온라인에서 수십억의 조회수를 자랑한다." 며 '유튜브 퀸' 이라는 수식어에 걸맞은 블랙핑크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이들의 팬들은 블랙핑크를 보기 위해 밤을 새 정도로 아티스트를 지지하고 사랑한다." 며 블랙핑크의 팬클럽인 블링크에 대해 언급했다. 사회자가 " '블링크' 들이 여기 계신가요?" 라고 묻자 객석에서는 환호가 터져나왔고, 로제는 "팬들이 정말 스윗하다." 며 블링크에 대한 특급 애정을 드러냈다.

블랙핑크가 '뚜두뚜두' 무대를 선보이기 전, 사회자는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가 유튜브에서 6억6천만 뷰에 달하는 기록을 세웠다" 면서 "오늘이 데뷔 첫 미

국 생방송 무대" 라고 전하자 관중들은 일제히 우레와 같은 함성을 내질렀다.

블랙핑크는 '첫 미국 생방송 무대' 라는 사실이 무척 할 만큼 자신감 넘치면서도 절도가 돋보이는 완벽한 갈군무를 선사했다. 관객들은 함께 '뚜두뚜두' 를 떼창하고 안무를 따라하기도 했다.

블랙핑크는 오는 4월 17일 로스엔젤레스를 시작으로 4월 24일 시카고, 4월 27일 해밀턴, 5월 1일 뉴어크, 5월 5일 애틀랜타, 5월 8일 포트워스 등 총 6개 도시 6회 공연으로 북미 투어에 나선다.

1251호 숫자퍼즐 정답

| | | | | | | | | |
|---|---|---|---|---|---|---|---|---|
| 1 | 4 | 7 | 2 | 5 | 8 | 3 | 6 | 9 |
| 9 | 2 | 3 | 1 | 4 | 6 | 5 | 7 | 8 |
| 5 | 6 | 8 | 3 | 7 | 9 | 1 | 2 | 4 |
| 2 | 1 | 5 | 9 | 3 | 7 | 4 | 8 | 6 |
| 3 | 7 | 4 | 8 | 6 | 2 | 9 | 1 | 5 |
| 8 | 9 | 6 | 4 | 1 | 5 | 7 | 3 | 2 |
| 4 | 3 | 2 | 5 | 8 | 1 | 6 | 9 | 7 |
| 6 | 5 | 9 | 7 | 2 | 3 | 8 | 4 | 1 |
| 7 | 8 | 1 | 6 | 9 | 4 | 2 | 5 | 3 |

종교 무관
주7일 예약상담

세월의 흐름과 변화에 순응하는 삶

☎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오래 전에 어느 중년 여성분과 상담하게 되었는데 먼저 필자가 상담을 의뢰한 분의 팔자(八字)를 보면서 건넨 이야기는 "원래 타고난 그릇 자체는 남다른 글과 학문이나 자격증 또는 학위를 이룰 수 있는 그릇이 되고 공직이나 이름이 알려진 대기업과 인연하여 활동하는 사주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운(運)의 흐름을 볼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직장운이 좋지 않고 원만한 배우자의 덕을 입기 어려운 운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 여성이 약간 놀라는 기색으로 하는 말이 "사실 그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서 현재 6개월째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는데

취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남편하고는 얼마 전에 이혼을 했구요."라고 말을 한다. 이어서 필자가 건넨 이야기는 "누구든지 자신이 타고나는 팔자에는 다양한 특징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제는 직장생활을 위한 특징을 활용하기는 어려운 운세이므로 이제는 본인의 팔자에 존재하는 다른 특징을 활용할 시점이 됩니다. 그래도 타고난 그릇이 미식가(美食家)의 재능이 있어서 요식업 분야도 할 수는 있는데 일반적인 주식(主食) 종류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기호식품 종류라고 할 수 있는 커피, 술, 제빵과 같은 분야나 또는 특수 요리의 성격이 많이 가미된 일식(日食) 종류를 할 수

있는 사주가 됩니다."라고 말을 해주니까 그 여성분이 하는 이야기가 "맞아요. 제가 그래도 요리는 아주 잘합니다. 이어서 필자가 건넨 이야기는 "진로에 대한 선택은 본인인 하는 것이지만 가능성이 없는 직장을 잡으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앞으로 성공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도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조언해 주었다. 세월의 흐름이 만들어내는 분수(分數)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선택인 것이다.

★ 사주명리 · 풍수 · 수맥감정 전문 ★

평생사주 총운 직업, 사업, 재물 궁합, 애정
상호, 이름 작명 풍수지리 출장 감정 수맥 탐사 전문

예약 필수 714.534.4645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정교한 사주해석 전문
청해역학학술원